

월드컵과 문자의 '쇠잔'

월드컵 열기속 문자문화 · 고급문화 외면 당해
부박 · 허영된 현대인 질한 치유, '문자문화 유일'

글_김승호 동국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4년 전 6월 우리는 쿵쾅거리는 가슴을 가누지 못하고 거리로 뛰쳐나가 목청껏 '대~한민국'을 연호하며 태극기를 흔들어대는 무리에 합세하지 않을 수 없었다. 4강에 진출했던 절정의 기쁨이 독일 월드컵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동하면서 온 나라가 오래전부터 응원의 스케줄을 짜느라 분주했다. 2002년에 기대 이상의 결과를 얻어서인지는 몰라도 독일 월드컵 경기를 두고 사람들은 너나없이 축구 전문가가 된 듯 각국과의 대결을 진단하며 이번에도 좋은 결과를 낼 것이라는 확신에 가득 차 있다. 누가 무어라 하든 6월은 월드컵의 달로 굳어졌다.

축구, '본초적 본능' 자극...부작용 언급 삼가는 분위기

이런 사정은 우리뿐 만은 아닌 듯한 데 축구의 탄생지 유럽은 물론이고 남미, 아프리카 등 전 세계가 6월 내내 TV에 눈을 둔 채 환호성과 탄식으로 날을 지새울 것이다. 월드컵은 전 세계적 중후군이자 일상을 지배하는 독특한 문화로 자리 잡아 버렸다. 이런 현상은 축구가 지닌 독특한 매력과 무관치 않다.

이 스포츠는 어떤 것보다 인간의 감추어진 원시성과 폭력성을 그 안에 잠재시키고 있다. 현대적 규칙으로 순화되었을 뿐 인간이 푸른 초원에서 맘껏 내달리거나 위력적인 발길로 상대를 공격하는 싸움 현장을 고스란히 투영시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대인들이 내면 깊히 억누르고 있는 본초적 본능을 자극시키는 축구, 그것은 양복차림의 말쑥한 신사마저 주먹을 불끈 쥐 채 흥분과 환호성을 터뜨리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다.

이런 축구의 마력에 빠져 특히 남자들은 학교나 직장 생활이 엉망이 될지라도 축구 중계를 위하여 기꺼이 모든 시간을 할애할 각오가 되어있다. TV를 보면서 그들은 운동장의 선수를 '타자'로 보지 않는다. 선수는 '나 자신' 일수도 있고 우리 민족일 수 있다. 그런 우리편 선수이기에 혼신의 응원을 보내며 골이 터지는 순간 땅이 흔들릴 정도로 환희작약하며 희열감을 만끽하게 된다. 설사 독방에서 홀로 TV를 볼지라도 시청자는 이 사회 이 나라의 일원이라는 자긍심마저 맛본다. 이렇듯 온 국민에게 민족적 정체감과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게 하는 월드컵이니만큼 그것에 대한 부작용은 가능한 삼가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월드컵의 시각문화와 다른 문자문화 · 생각 깊이 · 폭 넓혀

사실 필자는 월드컵이라는 국민적 중후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어두운 이면을 말하고자 해서 좀 지루하게 머리말을 늘어놓았다. 무엇보다 월드컵은 철저한 전략과 계획에 의해 연출된 하나의 상업적 퍼포먼스의 결과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다 안다. 경기장 위로 인류화합과 친선이라는 슬로건이 휘날리지만 보이지 않는 구석에서는 이를 빌미로 막대한 부를 챙기고자 하는 거대자본의 음험한 눈길이 번득이고 있다. 월드컵 조직위원회가 행사의 총감독을 담당하고 있다면 그 주변에는 수많은 기업과 업자들이 갖가지 광고와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워 세계적 축구 경기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는 것이다.

홍행몰이의 선동자는 물론 방송을 비롯한 미디어들

이다. 방송사들은 정규 프로그램을 함부로 취소시키고 광고단가가 높은 축구방송만을 내보내는 것을 관행으로 만들어 놓았다. 중계방송에 무장 해제된 시청자들은 월드컵에 눈을 고정시키지 않을 수 없도록 순치당하고 있으며, 아예 월드컵 시청이 당위적 의무로 바뀌어 버린 느낌이다. 이런 현실에서 문자문화나 기타 고급문화에 접해보라는 충고를 아무리 터뜨린들 사람들의 귀에 들어올 까닭이 없다.

하지만 영상 혹은 그런 시각적 매체에 기울어질수록 문자문화가 쇠퇴한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반성해야 할 때가 되었다. 영상문화에 비해 문자문화의 쇠퇴 현상이 너무 급격히 진행되고 있다. 인류역사가 무문자 시대에서 문자시대로 편입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세월을 필요로 해야만 했으며 일단 문자시대로 접어들자 문화 문명은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그런데 문명, 문화를 이루게 한 문자가 서서히 쇠퇴함과 동시에 영상문화 시대로 편입하고 있다.

책과 글 좋아할 때 '굳건한 정체성' 유지

그렇다면 문자는 더 이상 그 쓰임새를 찾기 어려운, 마땅히 폐기처분해야 할 유산으로 외면해도 좋을 것인가. 그것은 아니라고 본다. 영상시대에도 문자는 여전히 유효한 존재이며 가능하면 영상과 공조하는 대상으로 의미를 부과해야 한다는데 누구도 이의가 없다. 일찍이 세종대왕은 문자의 소중함을 최초로 인식한 군주였다. 그는 무엇보다 인민의 삶을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드는 첫 번째 도구가 문자라고 인식했다. 아직은 신분계층이 엄혹하게 구분되어있는 중세기였지만 적어도 백성들이 문자를 안다면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어려움 없이 표출할 수 있고 결국 삶의 질이 그만큼 높아진다고 여겼다. 그런 선지자의 후예로서 현재 우리는 정말 주권 없이 처신하고 있다.

문자는 생각의 깊이와 폭을 넓혀주고 나아가 문제 해결 능력과 창의력을 증진시키는 데 탁월한 효용성을 발휘한다. 날로 부박해지고 허영에 지배되어 있는 현대인들의 질환을 치유해줄 수 있는 매개란 영상이 아니라 문

영상매체에 길들여지고 책, 문자매체에서 멀어질수록 우리는 곧 치명적인 후유증에 시달릴 것이 뻔하다. 사유하기를 꺼리고 궁리하기를 외면한 채 누군가 조작한 영상에 현혹되어 더 이상 인간다움을 발현할 수 없는, 한갓 본능에 충실한 동물부류로 전락하지나 않을까 염려스럽다.

자문화라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책과 글을 좋아하는 한 사람들은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헤매는 법이 없다. 뿐만 아니라 문자를 지닌 나라는 한결같이 선진국으로 올라섰으며 그렇지 못한 나라는 약소국이나 피 지배국의 신세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역사는 분명히 증언해주고 있다.

문자에서 멀어지면 치명적 후유증 않는다

물론 인간은 본능적으로 문자보다는 영상을 선호하게끔 구조화되어 있는 동물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영상은 깊이 생각하지 않더라도 즉발적으로 이해를 도우며 오감을 순식간에 만족시켜 줌으로써 문자가 흉내 낼 수 없는 장점을 갖추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영상매체에 길들여지고 책, 문자매체에서 멀어질수록 우리는 곧 치명적인 후유증에 시달릴 것이 뻔하다. 사유하기를 꺼리고 궁리하기를 외면한 채 누군가 조작한 영상에 현혹되어 더 이상 인간다움을 발현할 수 없는, 한갓 본능에 충실한 동물부류로 전락하지나 않을까 염려스럽다.

영상은 마치 설탕과 같다. 당장은 입에 달아 그것만을 찾게 되지만 그렇게 감각에 따르다 보면 어느새 정신적 당뇨병에 빠진 자신을 발견할 것이다. 문자가 인류문화를 꽃피우는 결정적 매개체였듯이 미래에도 문자가 지닌 도구적 효용성은 상실되지 않을 것이다. 너무 심각하게 문자 외면의 세대를 강조한지는 모르겠으나, 책으로 빼곡한 서점에 점원만이 쓸쓸하게 자리를 지키는 그런 6월 달이 되어선 정말 곤란하다는 생각이다. **한문**